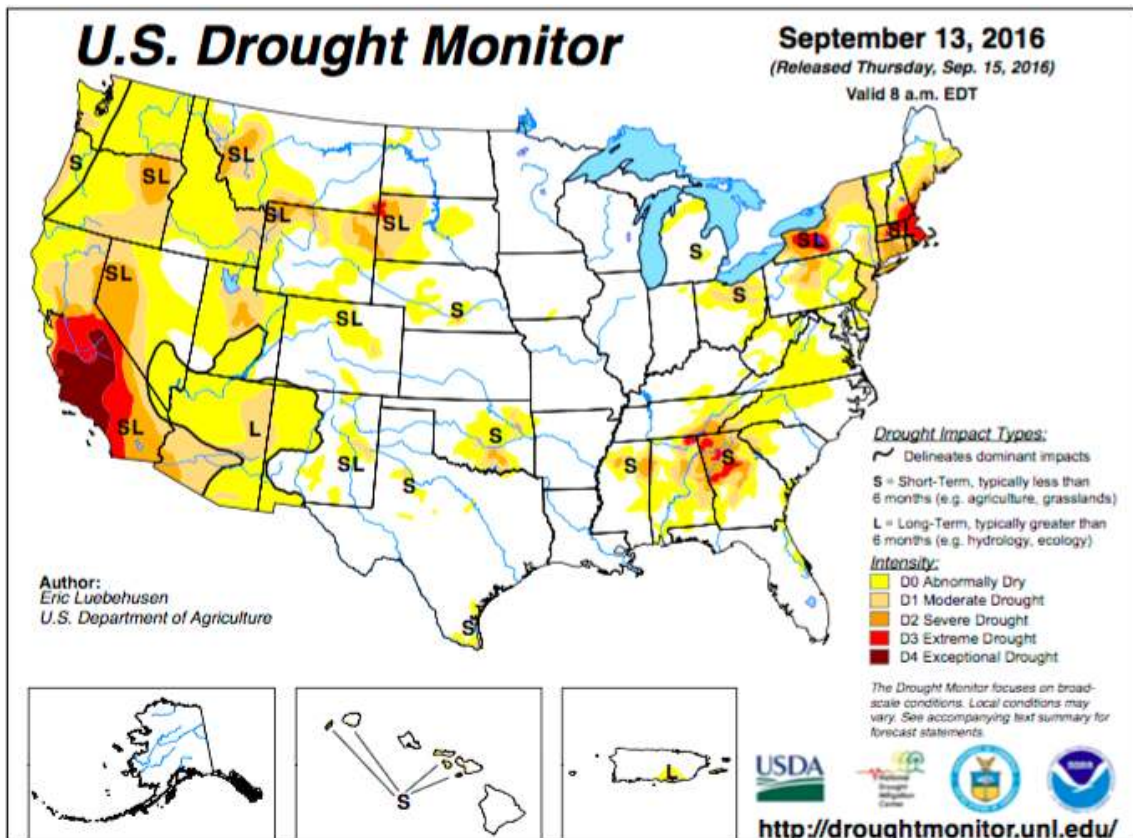


9월 20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3, No. 38)

□ 미국 기후 현황(9/1~9/17)

때늦은 더위가 북동부 일대를 찾아오면서 미시시피 델타 북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에 위치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5°F 정도 높았다. 반면,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북부 평원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걸프 연안 서부에서부터 대서양 연안 중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덥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열대성 태풍 Julia가 9월 13일 플로리다 북동부 해안에서 발생하면서 대서양 연안 남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가 내렸다. 남부와 동부 평원지역에서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은 2~4인치 내외였으며, 북부 평원과 콘 벨트(Corn belt) 동부에서는 때때로 소나기가 내렸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때때로 소나기가 한두 차례 내렸으나 캘리포니아와 남서부 사막지역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기 쌀 수확작업이 시작되었고, 애리조나에서도 면화의 수확작업이 시작되었다.



## □ 농업 현황 요약(9/12~9/18)

동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았으며, 수확작업 등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낮았고, 특히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몬태나, 네바다, 오레곤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6°F 정도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 지난 한 주간 내린 비의 양은 평균 1.5인치였으며, 캔사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등에서는 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 ■ 옥수수

9월 18일 기준, denting이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앞서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2%p 앞서는 수치이다. 전국적으로 황숙기가 시작된 지역의 비율은 53%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p 앞서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5%p 앞서는 수치이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캔사스, 미네소타, 위스콘신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황숙기에 이른 지역의 비율이 20%p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18일 기준 전국 수확률은 9%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3% 낮은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74%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주와 같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6%p 높은 수준이다.

### ■ 대두

지난 9월 18일 기준,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은 46%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4%p 낮지만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4%p 높은 수치이다. 미시시피강 일대의 따뜻한 날씨 덕분에 미네소타와 아이오와에서는 지난 한 주간 이파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지역의 비율이 각각 33%, 27%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수확률은 4%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2%p 낮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약간 낮은 수치이다. 응답자의 73%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10%p 높은 수준이다.

### ■ 면화

9월 18일 기준, 전국적으로 면화송이가 떨어진 지역의 비율은 48%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6%p 낮은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도 8%p 낮은 수치이다. 현재까지의 수확률은 6%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한 수치이고 직전 5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전체 응답자의 48%가 생육상황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높은 수치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에는 약간 낮은 수준이다.

### ■ 쌀

9월 18일 기준, 전체 수확률은 6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2%p 높고, 직전 5년 평균에 비해서도 15%p 높은 수치이다. 알칸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등에서는 지난 한 주간 수확률이 10%p 이상 증가했다.



## □ 세계 기후 현황(9/11~9/17)

■ 유럽: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 등에서는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0~6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는 특히 프랑스 서부와 북부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지이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가뭄도 어느 정도 해소해 주었다. 독일에서도 1~70mm 내외의 비가 곳곳에서 내렸지만 지난 8월 이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겨울작물의 파종작업이 시작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비로 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지역에 따라 20~9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로 인해 옥수수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었다. 반면 발칸반도 일대 국가들은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기온이 평년에 비해 4~7°C 정도 높았다.

■ 구소련(서부): 대체적으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농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주요 재배지에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가운데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겨울밀 파종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뭄이 이어지면서 겨울밀 파종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겨울밀 재배지역에서는 지난 8월 25일 이후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남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 동아시아: 슈퍼 태풍 Meranti의 영향으로 대만 남부와 중부에서는 많은 비가 내리고 강풍에 의한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태풍의 최고 풍속은 165노트였으며, 대만에 상륙한 이후 곧바로 소멸되었다. 중국 남동부 Fujian에서도 90노트가 넘는 강풍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산사태도 일어났으며, 한국과 일본 남부에서도 이번 태풍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다. 대만에서는 이번 비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비 덕분에 쌀의 생육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또 다른 태풍 Malakas가 대만 남동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북동부 평원 및 양쯔강 일대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면화 등의 수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호주: 남부와 동부에서는 25~10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이번 비로 일부 파종작업이 시작된 지역에서는 침수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파종작업도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주요 겨울작물의 생육 상황은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주요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11월이나 12월내에 종료되는데, 이번 비가 수확량 전망을 어둡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호주에서는 비가 산발적으로 내렸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9월 17일 기온이 영하 3°C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낮았고, 남부와 동부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 주요 곡창지역에서는 비가 내렸다. Buenos Aires의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으며, 이번 비는 Parana강 저지대 농지의 북쪽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옥수수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중부와 북부의 주요 재배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3°C 정도 높았고, 북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30°C 후반까지 올랐다. 남부 Buenos Aires 지역에서는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9월 15일 기준 옥수수의 수확률은 97%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100%에 비해 느린 편이다.

■ 브라질: 남부의 Rio Grande do Sul에서는 1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 브라질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부에서는 수확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탕수수, 커피 생산지역인 Sao Paulo, Minas Gerais, Espirito Santo 등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수확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밖의 중부와 북동부 내륙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졌는데, 이들 지역에서의 옥수수, 대두 파종작업은 비가 내린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주간 브라질 전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4°C 정도 높았고, Mato Grosso에서부터 Piaui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0°C까지 오르는 더운 날씨를 보였다.